

언어영역 문항 수 줄고 시간 짧아져

■ 2008 수능 주요 내용

성적 등급으로만 표기

오는 11월 15일 치러지는 2008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은 언어영역 문항 수와 시험 시간이 줄어들고 성적 등급(1~9등급)으로만 표기하는 것을 제외하면 지난해와 동일한 체제로 유지된다.

시험영역은 언어와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수험생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영역에 응시할 수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험생들이 수능에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 오는 9월 6일 모의평가를 할 예정이다.

◇출제 개요 = 언어와 외국어 영역은 범교과적인 소재를 활용해 출제범위를 특정 과목으로 한정하지 않으며, 수리 영역에선 가형과 나형을 선택, 응시해야 하고 가형에서는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중 1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언어영역의 경우 문항 수가 60분

항에서 50문항으로, 시험 시간이 90분에서 80분으로 줄어든다. 듣기평가 문항 수는 지난해보다 1문항 줄어든 5문항이고, 외국어 영역의 듣기 평가를 하지 않는다.

탐구영역은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으로 이뤄지며, 이중 하나의 영역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직업탐구 영역은 전문(실업) 계열의 전문 교과를 82단위 이상 이수(또는 예정)해야만 응시할 수 있다.

사회탐구 영역은 11과목 중 최대 4과목, 과학탐구 영역은 8과목 중 최대 4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직업탐구 영역은 17과목 중 최대 3과목을 선택하며 컴퓨터 관련 4과목 중 최대 1과목을, 나머지 13과목 중 최대 2과목을 각각 선택할 수 있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8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요점시기구분	기간	합격자발표	등록기간	비고
수시 모집	1학기 (원서접수) 2007. 7. 12~21(10일) (전형 및 합격자 발표) 2007. 7. 22~8. 31(41일)		2007. 9. 3~4	학생부기준일 교과:2007. 2. 28 비교과:2007. 6. 30
	2학기 (원서접수 및 전형) 2007. 9. 7~12. 11(96일)	2007. 12. 16까지	2007. 12. 17~18	학생부기준일 ~2007. 8. 31
정시 모집	가, 나, 가나군: 2007. 12. 20~25(6일간) 다, 가다, 나다, 가나리군: 2007. 12. 21~26(6일간)			
	(전형기간) 2007. 12. 27~2008. 1. 10(15일) 2008. 1. 11~21(11일) 2008. 1. 22~2. 11(10일)	최초: 2008. 2. 1까지 미등록 총원 등록: 2008. 2. 13까지	정시등록기간 2008. 2. 4~5 미등록 총원 등록: 2008. 2. 14까지	학생부기준일 ~2007. 12. 7
추가모집	2008. 2. 16~29 (14일의 기간 중에 접수-전형-합격자 발표-등록을 대학 자율 결정 시행)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응시원서 접수 및 교부는 각 시험지구별로 8월 28일부터 9월 12일까지 이뤄진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원서를 접수하지 않는다.

졸업예정자는 재학중인 고교에서, 졸업자는 출신 고교(다만 졸업자 중 시험지구를 달리하는 주소지 시·도교육감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정고시 합격자는 현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한 장소에서 원서를 접수한다. 응시원서는 본인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인이나 수험자, 군복무자, 입원환자, 해외 거주자에 한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대리 제출이 가능하다.

◇부정행위 방지 및 유의사항 = 시험장소 반입 금지 물품은 휴대용전화가,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렌, 전자계산기, 라디오, 워크맨,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가 해당된다.

휴대 가능 물품은 신분증과 수험표, 연필, 지우개, 답안 수정용 수정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 시각표시만 부착된 일반 시계 등이다.

연필과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필기구는 개인 휴대가 안 된다. 수험생은 반드시 응시원서 작성시 본인이 선택한 영역 및 과목의 문제만 풀어야 한다. 탐구영역 시험 시간은 과목당 30분이며 과목별로 시험종료 후 2분의 문제지 회수 시간을 둔다. 탐구영역 지원자는 과목별 번호 순서에 따라 응시 과목을 선택해 순서대로 기재, 응시해야 하고 OMR 답안의 답안을 잘못 표기한 경우 수정할 수 없다.

◇체점 및 성적 통지 = 체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고 성적은 오는 12월 12일 통지된다.

성적통지표에는 수험생이 응시한 영역/선택 과목별로 등급이 기재된다. 성적통지표는 응시자의 재학(출신) 학교에서 1매를 수험생에게 배부하며 여타 시도에서 응시한 수험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배부한다. 대학에 제공하는 성적 자료는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문제 및 정답은 11월 15일 매 교시 종료 후 공개되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전용 게시판에서 할 수 있고 11월 20일부터 27일까지 심사를 거쳐 11월 28일 확정 공개된다.

수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고 기타 시험에 관한 사항은 각 시·도교육청이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 (02-3704-3675, 3676, 3615)에 문의하면 된다.

/형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 국학 칼럼 ■

‘홍익 대통령’을 기다린다



이승현

필자가 모처럼 귀국해서 만나는 인사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한국의 다음 대통령에 관한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은가’ 하는 질문에는 할 말이 없다. 그러나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지도자상을 묻는다면 이야기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홍익대통령’이다.

가끔 정치인을 만나면 두 가지 질문을 한다. 그 중 한 가지는 “세상을 걱정하며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이다. 누구나 크고 작은 걱정을 안고 살아가며 인생의 고비에서 눈물을 흘린다. 그러나 세상을 걱정하며 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나라와 세상의 장래를 걱정하며 탄식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른 지도자라고 생각한다.

다른 질문은 “천부경을 아십니까?”이다. 천부경은 천지인사상과 홍익정신이 담긴 한민족의 경전이다. 지도자는 우리 민족의 정신과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 수천 년 동안 내려온 민족의 정신문화를 모르고 어떻게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으며, 민족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 갈 지도자에게는 다섯 가지 자질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자질은 도덕성이다. 도덕성은 정직, 성실, 책임감으로, 이를 바탕으로 공심(公心)이 생겨난다. ‘내 나라 내 민족이 잘 되지만 한다면 나는 무엇이 되어도 좋다’는 마음이 바로 공심이다. 지도자는 공심을 가질 때 당당할 수 있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다.

둘째는 올바른 역사관이다. 지도자는 뚜렷한 민족적 정체성과 역사적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국민의 힘과 긍지의 뿌리는 역사의식에서 나온다. 지도자가 주체적인 역사의식이 없으면 국민에게 힘과 긍지를 갖게 할 수 없다. 우리가 뽑는 사람은 ‘한국의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국조 단군과 민족의 뿌리

와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셋째는 철학이다. 홍익철학을 가진 평화주의자여야 한다. 인류의식은 분열과 대립보다는 조화와 화합의 가치, 관용과 화해를 소중히 여기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이끌 지도자는 민족의 화해와 세계평화에 기여할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야 하고, 평화를 창조하고 지킬 수 있는 밝고 강한 의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넷째는 비전이다. 앞으로의 시대는 국가나 민족이 아닌, 지구가 중심 가치가 될 것이며, 모든 국가와 민족은 지구경영의 시대에 얼마나 기여하느냐에 따라 평가를 받을 것이다. 지도자는 우리나라가 지구경영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해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국민을 인재로 만들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통일론이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이다 서둘러서는 안 되며, 제도의 통합이나 단일화보다 통일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누릴 ‘삶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 7천만 겨레의 마음이 하나로 묶이는 정신의 통일, ‘홍익’이라는 민족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통일론을 갖추어야 한다.

일찍부터 하늘이 짐찍어 준 위대한 지도자가 예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나라의 정치지도자든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의 의식수준에 상응하는 정치를 펼친다. 그래서 국민이 먼저 활(奮)나야 한다. 국민이 홍익의 철학과 기준을 가진 대통령을 찾아야 하고, 그런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없다면 그런 대통령을 만들 용기와 지혜와 힘을 가져야 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민족의 새로운 탄생과 지구경영의 시대를 이끌어 갈 홍익대통령의 탄생을 소망한다.

〈끝〉
(국제 뇌교육종대학원대학교 총장, 국제뇌교육협회 회장)

홍익의 철학과 기준 가진

대통령 뽑기 위해

용기와 지혜와 힘 가져야

호남대 전교수 해외 세미나

국내 대학 최초...中 절강여유대와 교류 확대

호남대(총장 이현정)가 국내 대학 최초로 전체 교수가 참여한 가운데 해외에서 자매결연 대학과 공동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호남대는 지난달 27~30일 자매결연 대학인 중국 절강성 절강여유(관광)대학에서 전체 교수와 교직원 2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하계 교수 세미나’를 실시했다.

행사 첫날인 27일 중국 항주 세계무역중심 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린 환영식에는 중국 절강성 관광국장을 비롯한 절강여유대학 총장 및 보직 교수들이 대거 참석해 양 대학은 물론 양 국가간 친선 및 교류확대를 도모했다.

28일에는 절강여유대학 대회의실에서 양 대학 교수가 참여한 가운데 세미나가 열려, 유준화 절강여유대학 교수(한국연구소장)가 ‘중국 대학교육개혁 현황 및 추진 방향’을, 김한배 호남대 입학관리처장이 ‘중국 대학과의 상호

교류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또 윤천균 호남대 인력개발센터실장이 3학년까지는 기존처럼 대학 캠퍼스에서 공부하고 4학년 과정은 국내 산업체나 해외인턴십, 재택 학습 등 캠퍼스 밖 교육을 통해 실무역량을 익히는 ‘3+1’학제를 국내 대학 중 호남대가 처음으로 도입한 배경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교무처 주관으로 교수 학술혁신의 필요성과 교원업적평가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호남대는 특히 오는 2학기 호남대로 유학을 올 절강여유대학 학생들과 학부모를 초청해 유학과 관련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한편 절강여유대학에 유학 중인 호남대 재학생들을 불러 격려했다.

이들간의 공식 행사를 마친 호남대 교수와 교직원들은 중국 절강여유대학 교수들의 안내



지난달 28일 중국 절강성 절강여유대학에서 열린 ‘2007 호남대 하계 교수 세미나’에서 왕곤훈(王昆欣)절강여유대학 총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로 세계적인 문화관광지로 성장한 항주 일대의 주요 역사문화유적지를 둘러보며 각 학과(부)별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성장할 광주의 미래 청사진을 모색했다.

이현정 호남대 총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교수와 교직원들이 자신은 물론 학교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많은 구상을 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 세계 12개국 47개 자매결연 대학과의 유대를 더욱 강화해 세계 속에 우뚝 서는 호남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형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이태리가구 전문점

30% Off SALE

1년 딱 한 번
7월 19일까지

www.honggapack.com

광주광역시 동구 신탄포리길 100-1호 | TEL: 062)236-7547

유비모드 북명사업부

062)369-9371-2 / 062)369-9371-3

062)369-9371-2 / 062)369-9371-3